에너지 사용 다시 증가 … 경기 회복?

광주·전남 산업체 전력·도시가스 감소 폭 둔화

"경기 바닥 친 것 아니냐" 조심스런 낙관론 '솔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곤두박질쳤던 도시가스, 전력 등 광주·전남 산업체들의 각종 에너지 사용량이 다시 늘고 있다. 전년 동기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감소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일 해양도시가스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200여개 업체의 산업용 도시가스 사용량은 1천6만2천㎥로, 전년도 같은 기간(1천111만4천㎥)에 비해 9.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판매량(1천85만9천㎥)이 전년 동월(1천278만2천㎥)대비 15% 감소한 것에 비해서는 감소폭은 둔화한 것이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월 사용량이 236만1천㎥로, 전년도 같은 기간(315만7천㎥)에 견줘 25%나 감소했지만 지난 1월 사용량 감소폭(39%)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진 것이다.

세방전지 광주공장도 지난 2월 사용량이 28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6천㎥보다는 다소 늘었고 매일유업도 지난해 2월 사용량(17만2천㎥)에 근접한 17만㎥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는 지난 2월 도시가스 사용량의 경우 39만3천㎥로 전년 동월 48만4천㎥에 비해 17.7% 줄어들어 지난 1월 사용량 감소폭(12.8%)보다 오히려 컸다.

삼성광주전자도 지난 2월 사용량이 75만9천㎥로 전년 동월(98만3천㎥)보다 22.7% 감소했다. 이는 지난 1월 100만9천㎥를 사용해 전년도 같은 기간(115만5천)에 비해 12.6% 감소했었다.

전력 사용량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제철소가 있는 광양 지역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경우 지난 2월 2억5천200만kWh로,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2억4천300만kWh를 넘어섰다. 광양지역 산업용 전력 사용량은 지난해 12월 말 1억6천600만kWh에 이어 1월 2억500만kWh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전 전남본부측은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산업현장의 전력 사용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 장중 1300선 돌파 6일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 보다 14.10포인트(1.10%) 오른 1,297.85로 마감했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직원이 주가 관련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조정 대상 기업 협력사에 300억 지원

韓銀광주본부

한국은행이 건설 및 조선업 구조조정대상 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월말부터 실시한 워크아웃 및 퇴출 대상 기업 협력업체에게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특별자금 대상을 2차 구조조정대상 기업 협력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송촌종합건설·새한종합건설·한국건설·중도건설·TKS·YS중공업 협력업체로 지원규모는 한국은행 지원액 150억원과 시중은행 자금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이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연 1.25%의 저리 자금을 지원받아 업체당 최고 20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게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출 유망 中企 지정 계획 발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6일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09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정대상은 광주·전남 및 제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우수 업체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각종 지원을 최우선으로 받는다. (문의)062-360-9193.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아파트 경매시장도 '활기'

3월 들어 광주지역 낙찰건수 7배 증가

전남도 900여건 진행 … 낙찰률은 저조

광주·전남의 아파트 경매시장에 봄기운이 완연하다.

6일 법원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은 "광주·전남의 3월 아파트 경매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진행건수나 낙찰건수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진행건수가 전달 83건에서 862건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낙찰건수도 42건에서 291건으로 7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전남의 낙찰건수는 91건에서 7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진행건수는 229건에서 882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평균응찰자수 등은 전달보다 모두 하락하거나 줄었다.

광주는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각각 50.6%→33.8%, 84.5%→69.3%, 평균응찰자 8.3명→2.7명 등이었고 전남도 낙찰률(39.7%→8.5%)과 낙찰가율(81.3%→80.1%)이 하락했고 평균응찰자 수(4명→2.9명)도 줄었다.

옥션 측은 "진행 및 매각건수가 급증한 것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대건설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대아파트 통경매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옥션 측은 또 "낙찰률 및 낙찰가율 하락, 평균응찰자 수 감소는 주공 등 일부 응찰자들이 임대주택인 점을 고려해 응찰가를 낮게 썼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지난 3월 광주지역 낙찰가율 1위(102%, 감정가 7천600만원, 낙찰가 7천766만원) 아파트는 북구 일곡동 한국아파트 103동 908호(59.9㎡)로, 전남 1위(132.9%, 감정가 5천800만원, 낙찰가 7천710만원)는 여수시 신기동 신하아파트 3동 604호(84.98㎡)였다.

전남 토지경매시장은 낙찰건수가 706건에서 716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진행건수는 2천240건에서 2천60건으로 크게 줄면서 '위축세'를 보였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경기 급락세 진정"

KDI 보고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최소한 단기 저점에 근접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KDI는 6일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에 대해 "내수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생산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요약 평가했다.

경기 침체기로 진입한 지난해 4분기 이후 KDI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고서에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소한 한국 경제가 단기 저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이는 재정부가 3일 그린북에서 "올해 들어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흐름이 소폭 개선되고 있는 모습"라고 표현한 데 비하면 경기 흐름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금융시장 '北風' 미미 … 주가 연중 최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도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코스피지수가 장중 1,300선을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시장은 지정학적 악재보다는 경기회복의 가시화라는 호재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10포인트(1.10%) 오른 1,297.8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8.78포인트(2.00%) 오른 447.94를 기록해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세로 출발한 이날 코스피지수는 외국인의 '사자'에 힘입어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장중 1,300선 탈환에 성공한 후 1,315선까지 올랐으나, 장 막판 차익매물이 쏟아져 나와 1,300선 밑으로 밀렸다.

장중 기준이기는 하지만 코스피지수가 1,3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10월16일 1,300선 붕괴 이후 6개월 만이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와 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1.00원 급락한 1,309.50원으로 거래를 마쳐 지난 1월7일의 1,292.50원 이후 석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대주건설 부사장에 박현규씨

대주건설(주)은 6일 박현규 전무이사를 총괄부사장에 승진 발령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